인본주의와 신본주의
: 인권과 윤리의 문제는 신앙과 이분법적으로 배치되는가?

들어가는 말

루이스(C. S. Lewis)는 우리에게 신앙이란 그 자체로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해 주는 빛과 같다고 했다.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현실의 이모저모를 신앙의 눈으로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도리어 "신앙의 이름으로 오염된 신학, 역사, 언어"를 염려한다. 역설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신앙이 우리의 현실을 밝히 비추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잘못 만들어진 안경처럼, 도리의 우리의 현실 인식을 비튼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묻는다.

몸을 갖고 사는 존재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르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벌거벗은 임금님"이 걸쳤다는 그 멋진 옷, 착한 사람에게만 보인다는 그 멋진 옷이 실은 그리 착할 것도 없는 내 모습을 숨기는 위선의 장치가 된다. 때로 우리 신앙의 언어도 그렇다. 나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내 말이 진정한 신비를 담긴 것인지 그저 모두가 걸친 척하는 허구일 뿐인지 가리는 일은 쉽지 않다.

신앙의 언어에 유창해질수록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음을 쉽게 망각한다. 우리는 언제나 하늘을 노래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하늘에 가 있는 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내 친구처럼 어깨를 부대끼며 나와 함께 산다는 말은 아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말하자면 그의 존재는 추상적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 물론 나는 그들이 틀렸다고 믿지만,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이 납득할 수 있게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는 네 믿음의 눈으로 많은 '증거'를 보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는 그 모든 '증거'가 내 신앙적 상상력의 결과물로 보인다. 현실이 이렇기에, 내 신앙의 언어는 자주 꼬인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현실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나는 몸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살며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말한다. 그런 나에게 내 신앙은 정확히 어떤 식으로 내 일상과 만나는 것일까?[1] 우리 신앙의 언어는 구체적인 일상 속 윤리 혹은 인권의 언어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 것일까?

이 연속 세미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현실 속 신앙의 의미를 묻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나의 직업이 신약성서 학자인 만큼, 이 글의 접근 방식은 좀 다르다. 신앙의 토대는 성경이다. 사람마다 경중은 다르겠지만, 우리는 모두 성경의 계시를 토대로 사유하려 노력한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들여다보면서 (초월적) 신앙의 언어와 (일상적) 윤리와 인권의 언어의 분리에 관한 생각을 더듬어 보려고 한다. 해당 주제와 좀 더 직접 연관된다고 생각하는 몇몇 구절을 숙고하면서, 신앙과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되짚어 보자는 의미다.

볼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예수

기독교는 이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

1) 많은 이들은 신앙과 현실과의 관계 방식을 유형론적으로 분석한 Richard Niebuhr의 고전적 저서를 떠올릴 것이다. ***역, 『그리스도와 문화』(서울: IVP,).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 요한복음의 증언처럼, 예수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로고스'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1:18; 6:46).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나와 같이 지상의 존재로 살아가는 다른 사람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 "아버지 품속에 있는 분, 하나 뿐인 아들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으로 오셨다.[2]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아버지를 직접 보았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다"(evxhgh,sato, 1:18; 6:46). 풀어서 말하자면, 예수는 우리가 알 수도 만날 수도 없는 하나님을 알고 만나도록 해 주셨다. 이 예수는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1:1). 그래서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완벽하게 체득하고, 이를 우리에게 담아낸다.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이분을 통해서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없다(14:6). 그런 의미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에게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붙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God-with us)라는 뜻이다. 인간 예수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이야기다.

그러나 속단은 금물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었다는 말은 아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대리자로 오셨다. 그의 역할은 자기를 통해 사람을 아버지께로 이끄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와의 만남은 그를 통해 아버지를 만날 것이라는 생생한 기대를 만들어 낸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아버지를 직접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성급하다. 이런 조급함은 제자들에게서도 발견된다. 이별을 예감하며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아버지를 이미 "알고 있다"고, 사실 "이미 그를 보았다"고까지 말씀한다(요 14:7). 이런 식의 말에 제자들을 상당한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다. 사실 아버지를 아직 본 적이 없는데 "이미 그를 보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빌립은 아주 대놓고 예수께 요구한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14:8). 이 대목에서 예수는 그 열망이 성급함을 지적하며, 다시금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그대들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도 **나**를 알지 못했나요?" 물론 예수님을 모르진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나" 곧 예수를 본 사람은 바로 아버지를 보았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요구했던 것이다(14:9). 좀 더 평범하게 말하자면, "아버지께서 내[아들]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신다"(14:10). 결국 이야기는 "믿음"으로 귀결된다. 예수의 가르침은 이렇다. "내가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는 것이다(14:11).

그렇다.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는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뿐이다. 한 인간 나사렛 예수다. 우리는 이 예수를 통해, 말하자면 간접적으로 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본다.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차리는 지식의 빛"을 얻는다(고후 4:4, 6). 이 믿음의 뒷면에는 우리가 아직은 아버지를 직접 볼 수 없다는 차분한 인식이 자리한다. 이는 불신앙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삶의 자리에 대한 냉정한 인식이다. 다시 바울의 말을 빌자면, 지금 우리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흐릿하게 본다"(고전 13:12). "흐릿하게"라는 표현은 마치 수수께끼처럼 분명하지 않다는 의미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face to face) 보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매개

---

2) 어떤 사본에는 "하나뿐인 아들이"로, 다른 사본들에는 "하나뿐인 [아들인] 하나님이"로 되어 있다. 두 번째 읽기가 원문일 가능성이 높다. Bruce Metzger, 장동수 역,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서울: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 2005), 164. 물론 두 번째 읽기에서의 "하나님"은 신적 위상을 가리키는 표현이다(1:1).

를 거쳐 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원래 볼 수 없는 존재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은 하나님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다.[3]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식한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 두 눈으로 만나는 이는 나사렛 출신의 한 인간 예수다. 우리와 같은 한 사람 예수를 만나는 경험 속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다. 사람을 벗어나, 사람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빛을 얻는다. 굳이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최대치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다.

예수의 부재와 기다림의 공동체

역설적이지만, 임마누엘의 약속을 품고 오신 예수 이야기는 그가 다시 그의 제자들을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시작된 드라마의 마지막은 그의 승천이다. 요한복음 식으로 말하자면, 하늘 아버지에게서 내려오신 아들 예수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요 13:1, 3).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눅 24; 행 1), 본격적인 교회의 이야기는 예수의 떠남과 더불어 시작된다.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처음부터 교회의 삶은 (잠시 이 땅에서 함께 계시던) 예수의 부재를 근원적인 존재의 조건으로 삼고 시작된다. 부활하신 예수는 제자들을 떠나셨고, 다시 오리라는 약속을 남기셨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오심을, 그가 오셔서 다시 "함께 계실 것"(parousia = presence)을 고대했다. 우리말로 "재림"(再臨)의 기대다.

기다림은 없음에서 생겨난다. 이 기다림의 정서, 떠나신 주님의 부재는 섣부른 신비의 언어로 감출 수 없다.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어진 탓인지, 오늘 우리는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에 만족하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쉽게 망각한다. 물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지만 이 믿음의 고백은 그의 부재라는 빈틈을 메우는 대체물이 아니다. 주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굳게 믿었던 바울은 동시에 현재의 삶은 주님과 떨어져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빌립보서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말한 것처럼, 그는 차라리 "세상을 등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고, 자기로서는 "그게 훨씬 더 좋다"고 토로한다(빌 1:23). 이는 죄수의 삶이 힘들어 내뱉아 본 염세의 한탄이 아니다. 그는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현실에 비관하는 대신 "언제나 용감하게" 살아간다고 고백한다(고후 5:6).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이지 보이는 것을 통해서가 아님"을 잘 알기 때문이다(5:7). 물론 그는 "몸에서 빠져나와 주님 곁에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5:8).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몸을 입고 살든 이 몸을 벗든 중요한 것은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다(5:9). 그래서 용감하게 주를 위해 이 부재의 시간을 살아간다.

예수의 부재와 임마누엘의 약속

부활하신 예수는 그의 제자들을 떠나셨고, 예수와의 이별 이후 시작된 제자 공동체는 그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다. 하지만 교회는 이 부재와 기다림이 예수와의 관계 단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수난 이전까지, 그리고 부활 이후 잠시 함께 누린 것과 같은 물리적 관계

---

3) C. S. Lewis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준비가 안 된 상태, 곧 우리가 아직 "얼굴을 갖지 못한" 상태라 말한다. *The Great Divorce* (). 그의 소설 중 하나의 제목은 이렇다. *Till We Have Faces* ().

는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든 예수와의 관계는 지속된다.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섬겼다. 물론 질문이 생긴다. 우리를 떠나 지금 계시지 않는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 땅의 제자들은 어떻게 떠나가신 주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을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마태복음은 예수의 오심을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야기로 규정한다. 이 임마누엘의 주제는 복음서 제일 끝에서 다시금 반복된다. "보라.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날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마 28:20). 마태복음이 실제 떠남이나 승천 장면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복음서가 예수의 승천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예수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날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있다"고 선언한다. 물리적 만남이 끝나는 시점에, 언제나 함께 있겠다는 약속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떠나가신 예수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믿기만 하면 되는가? 아니면, 그와의 관계를 우리의 현실과 이어주는 보다 구체적인 어떤 방식이 존재하는 것일까?

가장 작은 사람 중 하나로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마태 25:31-46)

복음서 전체가 제자 공동체를 위한 기록이지만, 이 질문에 가장 직설적인 답을 주는 본문으로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묘사하는 마태복음 25:31-46을 들 수 있다. 상황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가 고대하던 파루시아가 이루어지는 때다(31절). 물론 이 만남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오랜 부재의 시간을 결산하는 심판이기도 하다. 예수는 그 심판을 미리 예상하며, 생생한 그림으로 제자들을 가르친다. 때가 되면 "인자" 곧 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할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소환하여 양쪽으로 나누는데,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나눌 것이다(32절). 일반인처럼 혼동하는 일 없이 확실하게 구분한다는 뜻이다. 양으로 분류된 이들은 좋은 쪽을 뜻하는 오른편에, 염소로 분류된 이들은 나쁜 쪽인 왼편에 둘 것이다(33절). 이렇게 구별하는 절차가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판결이 시작된다.

실제 판결 묘사는 데칼코마니처럼 오른편과 왼편이 정확하게 대칭되는 구조를 보여준다(의인: 34-40절; 악인: 41-45절). 우선 왕은 오른편에 있는 이들을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사람들"로 부르면 "이리로 오너라!" 하며 구원을 선언한다. 이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을 복은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으라"(inherit)는 것이다(34절). 판결의 근거는 분명하다.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돌보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지금 재판장이신 예수께서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였을 집으로 맞이했으며, 벗고 있을 때는 옷을 주고, 아플 때 보살펴주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주었다(35-36절). 그런데 막상 이런 칭찬을 들은 "의인들"은 당황한다. 실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선행을 해 드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아직 오시지 않은 주님,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던 주님께 뭔가를 해 드릴 수는 없지 않은가(37-39절). 도대체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언제...? 언제...? 언제...?" 하며 임금님의 칭찬을 일일이 되받으며 던지는 질문은 이들의 당혹감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들의 물음에 대한 임금님의 답변은 놀라우면서도 선명하다. "너희가 나의 이 형제자매들, 곧 가장 작은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해 준 것이 나에게 해 준 것이다"(40절).[4] 이 선언은 "정말 내가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하는 강조의 문구와 더불어 시작한다. 그냥 가볍게 하신 말씀이

4) 이 "가장 작은 사람 중 하나"의 구체적 정체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다. 예수의 측근인 제자들로 국한하는 이들도 있지만, "모든 민족"들을 상대로 한 재판임을 고려하면, 모든

아니라는 뜻이다.

왼편 사람들에게 내리는 판결은 정반대다.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로 불리며, "나한테서 물러가라"는 심판의 선언을 듣는다.[5] 이 심판은 "마귀와 그의 심부름꾼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으로 들어가라!"는 것이다(41절). 이런 판결의 근거도 분명하다. 그들은 임금님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떠돌이 신세가 되고, 헐벗고, 아프고, 감옥에 있었지만 전혀 돌봐주지 않았다(42-43절). 당연히 이 사람들도 그냥 있지 않는다. 임금님의 선고를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인즉슨, 그들은 주님이 그토록 어려움에 놓인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 어려운 형편에 있던 주님을 팽개쳤다는 비난도 정당하지 않다. 계시지 않는 주님을 돌봐드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여기서 임금님의 답변도 앞서 "의인들"을 향한 답변과 선명하고 날카롭다.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가장 작은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다"(45절). 그리고 양편 모두에게 해당되는 최종 결론이 이어진다. "(지금 막 언급된) 이 사람들은 떠나가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반면, (먼저 소개되었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46절).

이 예상 밖 시나리오의 핵심은 "형제자매 중 가장 작은 이들 중 하나 = 주님"이라는 등식이다. 물론 이런 급진적 등식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다. 우리 중 누구도 주님과 동일시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모두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상황을 산다. 그래서 직접 주님께 무언가를 해 드릴 수는 없다. 양편 사람의 긴 반문이 말해주듯, 임금님의 판결이 실제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임금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존재를 상기시킨다. 사실인즉슨 심판 이전에 우리가 실제로 무언가 해 줄 수 있는 대상은 지금 몸으로 우리와 함께 있는 형제자매들뿐이다. 그래서 의인들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 중 우리가 도와야 할 이들을 돕고 섬긴다. "가장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는 그야말로 사소하다 여겨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곧잘 무시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킨다. 이런 사람에게 정성을 쏟는다는 것은 그저 눈에 띄는 약자에게 호의를 보이는 태도를 넘어, 사회적 약자를 행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태도를 가리킨다. 왼편에 선 이들은 이웃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서도 아무런 호의를 베풀지 않았다. 이후 심판 자리에서 드러나는 의의의 진실은 이렇다. 곧 주님의 판결 속에서 이웃을 향한 이 사랑과 냉혹한 무관심은 그저 이웃을 향한 사랑이나 무관심, 더 나아가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혹은 불순종에 머물지 않는다. 사실인즉슨 이웃을 향한 사랑이나 무관심은 바로 주님 자신을 향한 사랑과 무관심이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적어도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판단 속에서는 그렇다. 심판이 있을 것을 알며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들,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들을 사랑하며 섬긴다. 사후적으로 심판의 자리에서 깨닫게 될 일이지만, 이렇게 사람을 섬기면서 우리는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을 섬긴다. 말하자면, 부재와 기다림의 시간 동안 주님은 "형제자매 중 가장 작은 이들 중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떠나가신 예수께서 그 부재의 시간에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그들 중 작은 이들 중 하나를 섬기면서, 우리가 모른 중에 그런 존재로 분한 주님을 섬긴다. 지금 이웃을 향한 윤리를 말하고, 어려움에 놓인 이들의 인권을 말함으로써, 주님을 향한 섬김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섬김으로써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사람들이다.

---

5) 가까이 오라는 것은 구원을, 내게서 멀어지라(떠나가라)는 말은 저주와 심판을 의미한다(마 7:23).

부재의 시간에 주님과 함께 하는 삶 - 요한복음

복음서에서 이별과 부재의 불안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 요한복음이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자주 예수의 "때"에 관해 이야기한다(2:4; 7:30; 13:1, 3). 물론 이 "때"는 이 세상으로 내려올 때 품고 온 아버지의 뜻, 곧 세상에 생명을 주는 역할을 다 마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때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 귀환의 여정에는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 포함된다. 예수는 이런 여정을 다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이 귀환이 제자들에게는 예수와의 이별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전반부에서 공개적 무대에서의 활동이 마무리된 후, 후반부는 바로 예수께서 이 "때"를 의식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예수님은 이제 자기의 때, 곧 이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아셨다(13:1, 3). 그래서 그의 제자들과 긴 이별 의식을 치른다. 잡히시던 날, 그러니까 공관복음으로 치면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지던 날 이야기다. 공관복음은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마지막 식사를 중요한 상징적 행동으로 부각하지만, 요한복음은 식사 자체에는 사실상 관심이 없다(13:2, 26-30). 오히려 요한은 긴 지면을 할애하여 예수와 제자들의 고별 상황을 전해준다(13-17장).

이제 곧 예수는 떠나갈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한다. 예수는 여러 가지로 제자들을 안심시킨다. 지금은 아버지께로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는 말씀도 하고, 또 떠나신 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주어진다. 당연히 다시 오신다는 확답도 주어진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예수는 떠나가시지만, 그렇다고 없는 시간 동안 제자들과의 관계가 아주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가 떠나신 이후에도 어떤 식으로든 그와의 관계는 지속된다. 문제는 그가 계시지 않는 그 시간동안 어떤 식으로 관계가 유지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물음을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는 본문은 15장, 그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다. 워낙 잘 알려진 탓에 이 비유만 맥락 없이 소비되고, 정작 이 비유가 본문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는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 본문은 예수께서 떠나가신 이후 제자 공동체가 "계시지 않는"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실질적 방식에 관한 가장 선명한 답변을 제공해 준다.

포도나무와 가지 이미지는 결속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이 사실은 본문 내에서 여러 차례 반복 언급되며 강조된다. "가지"로 규정된 제자들은 포도나무이신 예수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결정적 사실은 비극적 반대 상황을 가정한 경고 형태로 거듭 강조된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 제자들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4, 5절).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려 밖에 버려지고 불에 던져질 것이다(6절). 하지만 사태가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현실 속에서는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다. 본문은 바로 그런 터무니없는 상황을 전제하며 시작한다. 그래서 비유의 첫 장면은 포도나무이신 아들과 전지가위를 손에 든 농부의 모습이다(1절). "내 안에 있는 가지"이지만, 그 누구라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는 그 가지를 잘라버린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그것을 깨끗하게 다듬는다(2절). 그렇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같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얼핏 보기에는 분명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막상 열매는 맺히지 않는다. 계속되는 경고에서 보는 것처럼, 이는 사실상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다는 말과 같다. "내 안에" 있지만, 아니 적어도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를 떠나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풍성한 열매를 맺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그런 관계는 과연 어떤

관계인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 안에 머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순종으로 구현되는 사랑

본문의 취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은 이 멋진 비유 이미지를 구체적인 현실 언어로 해독하는 일이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제대로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문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반대로 또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문다"는 말은 또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우리는 대부분 이런 식의 "영적" 언어에 익숙하고, 습관처럼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만, 막상 그 말의 구체적 의미를 물으면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 말에 익숙해지면서 막상 그 말의 실제 의미를 캐묻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다.

늘 입에 달고 살지만, 구체적으로 "주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어떤 상태 혹은 상황을 가리키는 말일까?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주님과 "영적으로" 함께 있다는 이야기일까? 이 물음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은 9절에 나온다. 이는 "나 또한 그대들을 사랑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여기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라는 수식이 더해진다. 아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을 그대로 이 땅의 제자들에게 실천하셨다. 이 땅에서 예수의 행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그의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잡히시기 전 이 고별의 장면에서도 그는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13:1). 이제 제자들과의 이별을 준비하며, 주님은 자기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상기시키며, 바로 그 "사랑 안에 머물라"고 훈계한다. 그러니까 제자가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은 무엇보다 주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다. 주님과 제자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면, 이 말씀은 곧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과 제자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한 답이 되지는 않는다.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은 그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뜻이다. 하지만 물리적 공간이 아닌 "사랑 안에 머문다"는 표현 역시 아직 모호하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음미하며, 그 은혜로운 혜택을 마음껏 누리면 된다는 말인가? 아니면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주님께 보여야 한다는 말일까? 특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사랑 이야기는 더 막연해진다. 우리는 어떻게 계시지 않는 주님을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가?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주님 사랑해요" 하며 노래한 후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가?

예수님은 이 물음을 허공에 떠돌게 두지 않는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이 곧바로 나온다(10절).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그대들이 나의 계명을 지킨다면, 내 사랑에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은 신앙의 언어로 그의 사랑을 음미하고 찬양하는 것을 넘어 보다 실천적인 모습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계명 순종으로 지탱되는 사랑의 관계는 먼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대로 제자들에게 확장된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teth,rhka) 그의 사랑 안에 머물고있는(me,nw)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의 시제가 흥미롭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을 "이미 (다) 준수했다"(현재완료형). 그래서 그의 사랑 안에 "(지금) 머물고 있다"(현재형).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곧 그가 하라고 주신 일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었다. 바로 그런 순종의 행보가 있었기에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다. 바로 이 관계의 방정식이 이제 아들과 그 제자들

에게 적용된다. 하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대들이 나의 계명들을 지킨다면, 내 사랑 안에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무는 방법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하는 관계는 그저 벅찬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열매를 맺는 실질적 영적 유대는 주님이 주신 계명을 충실하게 지키려는 실천적, 윤리적 몸짓을 통해 유지된다.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계명에 철저히 순종하고,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과 마찬가지다.

편의상 15장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사실 순종과 사랑의 긴밀한 얽힘은 고별강화 전체에 걸쳐 거듭 강조된 주제다.

> "그대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들을 지킬 겁니다"(4:15).
>
> "내 계명들을 간직하여 지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14:21 상).
>
> "누구든지 나를 사랑한다면, 그는 내 말을 지킬 겁니다"(14:23절).

그 반대도 마찬가지로 사실이다.

>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습니다"(14:24).

사실 예수의 긴 가르침은 모두 아들이신 예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실천하신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다(14:31). 바로 이런 아들의 행보 그대로, 제자들 역시 주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며 그의 사랑 안에 머물라는 말씀이다.

서로를 사랑하라는 계명

이 깨달음은 우리를 마지막 질문으로 이끌고 간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그의 계명은 무엇인가? 그 답 역시 선명하다. "나의 계명은 이것입니다. 그대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들을 사랑한 것처럼요"(12절). 사실 이는 예수께서 처음부터 역설하신 논지를 다시 한번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을 아신 후(13:1, 3),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다. 여태 그가 자기 제자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며 본을 보였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 역시 그와 같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13:33).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였다. 그리고 아들은 그에게 주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13:1; 15:10). 그리고 주께서 떠나신 후,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사랑한다. 하늘의 사랑을 이어받은 이 공동체 내의 사랑이 그 공동체를 예수의 제자로 드러내는 핵심 표지가 될 것이다(13:34). 주님과 제자의 관계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이 논리의 함의를 다시 새겨보자.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은 그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다. 주의 사랑 안에 머무는 핵심 요건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를 역으로 추적해 보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주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주의 계명을 지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 순종으로 주

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윤리적 노력, 서로를 인권을 존중하려는 몸짓이 바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요, 지금 계시지 않는 주님 안에 머무는 방법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공동체의 형제자매를 사랑함으로써 다름 아닌 주님을 사랑한다. 이것이 제대로 된 의미에서 생명의 원천이신 "포도나무 안에 머무는" 방식이요,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 방법이다. 사랑으로 집약되는 일상 속 윤리적 실천이 바로 주님과 관계를 맺는 신앙의 열쇠가 되는 셈이다.

상호거주

본문에는 눈에 띄는 사실이 하나 더 있다. 이 "머무름"은 상호적이다. "내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겠다"(15:4).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 제대로 머물면, 예수께서도 가지인 우리 안에 머물 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제대로 된 "머무름"은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머물고, 포도나무는 가지 안에 머무는 살아있는 관계다. 앞에서 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표현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묻게 된다. 그냥 분위기로 즐기는 언어유희나 심리적 만족이 아니라면, 이 표현 속에도 좀 더 구체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잠시 후 "나도 그대들 안에 머문다"는 표현은 "내 말이 그대들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는 말로 바뀐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신다는 것은 막연한 느낌의 신비적 언어가 아니라, 매우 실질적으로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문다는 의미다. 물론 그의 "말씀"은 처음부터 계속 나온 그의 "계명"과 다르지 않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새기고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주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삶 속에서 주님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문다는 말이나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문다는 말은 모두 "서로 사랑하라"는 윤리적 계명으로 수렴된다. 이미 분명한 결론이지만, 예수는 이것마저 제자들의 추론에 맡기지 않고 직접 선명한 결론을 내린다. "이것을 그대들에게 명령합니다. 서로 사랑하세요!"(15:17).[6] 이것이 바로 "내 안에 머물러라" 하는 권고의 구체적 의미였다.

떠나가신 주님의 부재를 메꾸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계시지 않는 주님을 계시는 것처럼 말하거나, 그렇게 만들려는 시도는 위험하다. 이런 시기에 가장 현명한 태도는 주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물리적 부재가 관계 자체의 부재는 아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누린다. 하지만 "계시지 않는"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 신비적 언어나 수단으로 미래의 만남을 가불하려는 조급증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다림의 시간 속 주님과의 관계는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지극히 현실적 몸짓을 통해서 구현되고 유지된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몸짓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이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표현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언어와 사람을 사랑하는 언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연습함으로써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하나님이라는 궁극적 신비를 향한 길은 여기서 곧장 하늘로 뚫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는 이웃의 광장을 거쳐 간다.[7]

---

6) 개역개정은 이를 목적으로 옮겼지만("내가 이것을 명함은 너희로 … 함이라"), 이는 접속사(i[na)의 용법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오역이다. 새한글성경의 번역이 정확하다.

7) 요한복음의 "서로 사랑"은 원수조차 껴안는 공관복음의 "이웃 사랑"에 비해 매우 폐쇄적인 것처럼 보인다. 요한복음의 이런 언어는 종종 (유대교라는 태반에서 갓 떨어져 나온?) 신생 공동체의 정체성 확보 차원에서 설명된다. 물론 내부결속이라는 당면 필요를 반영하는 이런 언어를 의도적 폐쇄성의 표현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사랑

복음서가 보존하고 기록한 예수의 가르침은 그대로 초기 교회의 신념이기도 하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일상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의 공간이라는 통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몸짓과 사람을 품는 몸짓이 다르지 않다는 이 통찰은 실제 초대교회의 언어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모범적인 신앙을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라는 삼중의 언어로 요약한다(살전 1:3). 이는 신앙을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는 언어가 아니다. 오히려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에 가깝다. 신자들의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직적으로 바라보면 "믿음의 행위"가 된다. 물론 그들의 행위는 대부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행위는 아니다. 지금 그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이웃뿐이다. 그래서 이 "믿음의 행위"를 수평적으로 말하면 "사랑의 수고"가 된다. 신자들이 살아가는 이런 믿음과 사랑의 삶은 모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의 빛 아래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삶은 또한 "소망의 인내"이기도 하다. 바울의 언어에서 사랑과 믿음이 쉽게 뒤섞이는 이유가 여기 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믿음이 "사랑을 통해 움직이는" 것으로 규정된다(5:6). 믿음은 사랑에 의해, 혹은 사랑이라는 모양으로 움직인다. 믿음이 의로움의 해답인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3:2, 5). 이 믿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과 연결된다(3:13-14; 4:4-7). 물론 믿음으로 주어진 이 성령은 공동체 내에서 사랑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삶의 태도를 만들어 낸다(5:13, 22-23절).[8] 바로 이런 이유로 성령은 신자들이 꿈꾸는 구원(의의 소망, 하나님 나라 상속, 영생)의 열쇠다(5:5, 19-23; 6:7-8). 반면 할례나 날짜 준수와 같은 것들로 대표되는 "율법의 행위들"은 성령의 통로가 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 율법은 무력하다(3:19; 4:9).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을 위한 열쇠가 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행위를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들어서가 아니다. 바울은 이런 오해에 빠지지 말라고 신자들에게 거듭 경고한다(갈 6:7-8; 롬 1:18; 6:15, 19-23; 8:13). 믿음과 성령을 연결하는 그의 움직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이 구원의 해답인 것은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기 때문이고, 이 성령의 선물에 힘입어 새로운 사랑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다.

바울이 화가 났던 것은 신자들이 이제 쓸모없어진 사회적, 종교적 자랑거리들 때문에(할례, 절기준수 = 유대인이라는 외면적 정체성) 정작 중요한 사랑의 실천을 팽개쳤기 때문이다. 곧 그들의 잘못은 윤리적 열심에 몰두하며 신앙과 믿음의 언어를 팽개치려 했던 것이 아니다. 사태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 그들은 생명을 주지 못하는 세속적, 종교적 자격요건을 따지며 서로 경쟁했다. 그러면서 도리어 사랑으로 작용하는 믿음의 삶, 성령에 이끌리며 그 열매를 맺는 삶을 팽개치려 했다. 피상적인 신앙의 언어를 남발하며, 오히려 믿음이 핵심인 사랑의 윤리를 팽개치는 잘못이었다.[9]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신자들의 삶에서 무엇보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가르친다(고전 13장). 일시적으로 중요해 보이는 지식이나 예언이나 방언과 달리,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언제나 중요한 것으로 남을 것이다(13:8, 13). 그런데 이 셋 중에서도 가장 큰 것, 가장 중요

---

8)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에 관해 자주 말하곤 하지만, 사실 이 목록은 유사 개념을 열거하여 바람직한 삶의 자태를 스케치한 것이다. 실제 목록 속 대부분의 태도는 문맥에 따라 유사한 의미로 치환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다(5:6, 13).

9) 이는 갈라디아서에 관한 필자의 여러 글에서 설명한 적이 있다.

한 것은 바로 사랑이다. 하도 익숙해 그런가보다 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 이 짧은 진술은 바울서신 전체에서 가장 급진적 발언 중 하나다. 서로 간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미래를 내다보는 소망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사람을 향한 윤리의 언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언어보다 더 소중하다는 이야기다. 물론 바울은 정말 신앙을 윤리와 나누고서 그 경중을 재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아직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지 못하는 우리, 기껏해야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를 깊이 인식한다(13:12).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는 형제자매와의 사랑으로 매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안다. 신앙 없이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에서 믿음과 소망이란 결국 현실 속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다.

나가는 말

우리가 신앙의 언어에 끌리는 이유 중 하나는 하늘을 향해 (품 안 드는) 말을 내뱉는 것이 (희생을 요구하는) 사랑의 윤리적 실천보다 더 쉽기 때문이다. 우스개 소리로 "성경 전체를 필사하는 것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한 말씀을 실천하는 것 중 어느 게 더 쉽겠냐?" 하는 질문을 하곤 한다. 성경 필사가 쉽다고 말할 사람은 없겠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일이라는 점에서 사랑과는 차원이 다르다. 나 자신과의 싸움인 필사와 달리, 사랑은 다른 사람 앞에서 끊임없이 내 자존심과 내 욕망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우리는 성경의 몇몇 가르침을 들여다보며, 신앙의 언어와 윤리적 실천이 어떤 식으로 엮이는지 살펴보았다. 우리의 현실을 더 촘촘히 분석하며 신앙의 언어와 윤리의 언어가 뒤엉키는 양상을 조사하는 것이 다음 순서이지만, 그건 다른 분의 몫이 될 것 같다.

이 글의 결론은 분명하다. 적어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시간, 그래서 그를 기다리는 시간을 사는 동안에는 윤리의 실천이 곧 신앙의 내용을 이룬다는 것이다. 적어도 이땅에서는 사랑이 유일한 믿음의 형태다. 물론 이는 윤리가 신앙을 대체한다는 식의 논리가 아니다. 하지만 윤리적 실천이 없이는 신앙이 불가능하다는 말 또한 사실이다.